2015 년 12 월 06 일(주일) 야고보서(7) "그 믿음이 능히 그를 구원하겠느냐"(약 2:14-17)

[1] 14 절 해석의 길

14 절은 2 장의 '행함 있는 믿음의 주제'를 간파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14 절 문장은 전후 맥락을 따지지 않아도 메시지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무시하면 말씀의 본의를 놓치게 됩니다.

이 절은 2 장 초두에서 꺼낸 교회의 차별 이슈의 맥락에 연결됩니다. 이 말씀은 '그 믿음이 능히 **그**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면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성경에 '자기'(영어로는 him)는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15-16 절도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다루어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14 절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말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겠느냐는 뜻일까요? 믿음이 있다면 가난한 자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이 "그를 구원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매우 폭넓게 쓰여집니다. 이 구절에서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곤경에서 꺼내 주고, 가난과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나오도록 도와주어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의 성격(특징, 색깔)

15-16 절. 가난한 자에 대한 구체적 지침. 17 절, '이와 같이 **[이웃을 향해(가난한 자를 향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 ]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아직 실효가 되지 않고 있다. 영어로는 activate 또는 validate 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며,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믿음(2:1)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가진 믿음의 영향력과 기독교인의 증거를 highlight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선행을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신약 전체의 교훈

엡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딛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행의 삶(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실천할 때에 자유와 평강을 선물(상)로 받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실천)의 삶으로 용기를 갖고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선물들은 적어도 나를 넘어서는 믿음의 활동성이 발휘가 되야 합니다. 그 때 위에서 부여 받는 영적 선물의 가치가 발견되고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열심히 바쁘게만 산다고 해서 믿음의 항해는 아닙니다. 나의 삶을 믿음(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항해입니다. "나는 자유의 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가" "나는 믿음이 있으므로 형제 자매에 대해 선행을 베푸는 동기부여와 활력을 주님께로부터 얻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18 절, '믿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믿음 자체는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행함은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주석을 쓴 Kendall 은, 성도는 세상에 show window 와 같이 전시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품과 삶의 방식과 질을 보이는 곳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나는 안 믿어도 당신들과 별 다를 것이 없소'라고 그들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행함 없는 믿음의 위험성

성도가 세상에 전시될 때 이 믿음의 실효성을 발휘하는 삶의 방식을 구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상을 지연시킵니다. 이것은 어떤 죄일까요?

1.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매우 가난하고 인심 박한 신으로 만듭니다.

2. 동시에 성도의 삶 또한 메말라 갈라지게 합니다.

3. 세상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욱 세속적이고 이념적인 풍토와 사상 속으로 빠지게 하여 더욱 어지럽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맺음>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는 강하든, 약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삶의 진정한 힘은 그런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진정한 힘은 믿음의 행함에 의존되는 것입니다. 행함은 우리의 의지와 행사와 투쟁에 의하여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위를 당기고 행함으로 화살을 쏘십시요. 자신의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놓고서는 평온하다 말할 수 없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향해 키를 잡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유업의 축복의 부요함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2015 년 12 월 06 일(주일) 야고보서(7) "그 믿음이 능히 그를 구원하겠느냐"(약 2:14-17)

<요약>

2:14 은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해석의 키입니다. "자기"는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전통적 해석과의 차이). 야고보 교우들이 믿음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구원(유익)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조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이슈는 2 장 초반부터 15-16 절까지 한 맥락을 이루고 있으므로 믿음이란 죽은 믿음(실효성이 없는)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주님 뜻을 따라서 직접 실천하는) 믿음으로 성숙해져가야 합니다.

<질문 및 나눔>

1.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착한 일을 하며 살면 행함 있는 믿음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의를 말해 보세요.

2. 행함 있는 믿음의 삶 위에는 하나님의 보상(상)이 따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신약에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대부분 행함 있는 믿음을 조건으로 강조). 이것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갖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답게 성숙해 가는 과정 안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며 힘을 실어줍니다. 당신은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보상을 받은 적이 있으며 또 기대합니까?

3. 2 번의 질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쁨, 칭찬, 인정, 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과 의욕, 지혜, 자질 등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살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을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안목과 가치관 정립이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매일 이 차원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을 매일 성경이나 기도를 통해 깨달은 바가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